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대응(2)

## 양계농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AI 추가발생 없어야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병한 고병원성 AI가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설 명절 기간에 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2월 4일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에서 AI확진이 된 이후 경기 화성과 전남 영암에서 추가로 신고가 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AI 의심신고는 22건으로 그중 15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야생 철새(분변포함)는 153건이 검사 의뢰되어 17건에서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감염원이 철새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전북 군산 금강 하구, 전남 신안, 충남 서천, 충남 당진 삼교천, 경기 화성 시화호, 경기 수원 서호 등 서해안을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AI가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현재 강원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AI발생의 위험지역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방송사 항의 방문 등 안정화 노력

AI가 발생하면서 모든 방송사에서는 앞다투어 AI발생 보도를 이어갔다. 물론 매물처분 등 혐오스런 장면까지 여과 없이 방영되었고 하루에도 수백 건의 AI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소비하락을 부추겼다. (사)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가금관련단체는 'AI방역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언론과의 대응을 통해 AI 조기종식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언론에서는 '조류독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고, 매물처분 등 혐오스러운 장면은 물론 중국 등 외국에서의 AI감염에 의한 사망 사고 등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다. 지나친 과잉보도에 따른 소비하락을 막고 가금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KBS 등 5개 방송사를 찾아 '방송사제 요청'을 골자로 한 가금관련단체들의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가금관련단체의 주요 요구사항은 '조류독감' 용어를 AI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꾸며, 배경화면에 살처분 등 혐오스러운 장면을 자제하고, AI 확산보다는 소비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바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방송횟수가 줄고 혐오스러운 장면도 감소하였으나 다시 인체감염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다시 소비가 폭락하고 정부와 관련단체에서는 소비홍보행사를 준비하는 등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양계농가 안정화 방안

AI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에서는 △ 살처분보상

비 △ 생계안정자금 △ 소득안정자금 △ 가축입식자금 △ 경영안정자금 △ 구매지원 △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면제 등 피해농가 지원이 뒤따랐던 게 과거의 예이다. 7일현재 살처분된 농가는 143농가로 298만수에 이른다. 이중 육계가 25개 농장에서 130여만 수가 매물처분되어서 가금 중 가장 많은 수가 매물처분되었다. 과거 AI가 한번 발생하면 최소 6백억에서 3천억 원까지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된 바 있으며, 현재 상태로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최소 5백억 원의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되게 된다. 육계에서의 살처분 보상비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발표가격으로 산정하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하여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가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20~80%)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이동제한 지역에 묶여 출하가 지연되거나 산단유통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출하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서둘러 수매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살처분 당한 농가들에게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지급되어 경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청정국 지위 확보위해 노력을

AI가 발생한 위험지역 내에서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즉, AI의 최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면 3주 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로 해제된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AI발생지역에서 재입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사육 뒤 검역검사본부에 21일간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난 2월 3일 충북 음성에서 AI가 최종 발생되어 더 이상 발생이 없다고 가정하면 오는 5월 3일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과거 AI가 빈발했던 지역 및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방역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발생없이 하루빨리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여 양계산업이 안정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닭고기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나 닭고기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와 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농가출하</b>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b>거출금 징수 위탁</b>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b>거출금 징수</b>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b>농가직접납부</b>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b>거출금 송금</b>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b>고지서 발송</b>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前 국립축산과학원장  
이 상 진 박사

前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인 이상진 박사는 축산기술연구소(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 가금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구데이를 창안한 인물이다. 이상진 박사는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99세가 되면 백수(白壽)로 부르며 장수의 의미로 축하연을 베풀었던 것에 착안해 구구데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닭고기는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만 소비가 활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연중 1월 1일에서 99일째 되는 날(4월 9일)은 화이트데이(白日 : white day)로 백숙을 먹는 날로 하고, 9월 9일은 구구데이로 닭고기를 먹는 날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11회째를 맞이한 구구데이는 닭고기 제품 시식 및 우수 브랜드 할인 행사 등을 전개하며 대대적으로 닭고기 소비 촉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32년간 연구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초창기 3년을 제외하곤 29년간 닭 관련 연구에 종사했던 이상진 박사는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도 월간폴트리 편집위원장, 토종닭인정위원, 양계능력검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쌓아놓았던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후학을 양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상진 박사는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27회나 완주했을 정도로 체력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듯 한결 같이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진 박사를 찾아가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들어봤다.



인터뷰

## 닭고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형닭의 개발 요구돼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닭고기는 영양균형을 찾고 항암효과를 얻을 수 있는 메치오닌 풍부

■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I를 막기 위한 농가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공기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존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조성하고 질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기도 중요합니다. 흔히들 AI가 발생할 경우 입기 구 쪽의 닭들이 먼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기 상태가 안 좋은 계사의 배기구에 있는 닭들이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누적해서 들이 마시다 보니 배기구의 닭들이 먼저 AI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환기관리를 통해서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닭을 밀사하지 않고 좀 더 넓은 환경에서 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AI 확산은 양계농가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AI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 육계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지요?

1990년대 초 일본에 국내산 닭고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대형닭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닭고기 시장은 한 마리 당 1.5kg의 닭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닭고기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 업계에서 마리 당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닭 한 마리의 출하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1.5kg으로 작아진 탓이 큼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닭고기는 대형닭이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2.4~2.5kg, 일본은 2.9kg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닭고기가 1.5kg의 소형닭 위주로 생산되어서는 절대로 소비가 증대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닭은 닭이 어리다 보니 수분 함량이 많고 살코기가 없어서 닭고기의 제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닭이 뼈와 함께 요리가 되므로 부분육을 만들기 어렵고 가정의 주식으로 정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닭 한

마리를 먹으면 뼈 한 마리 분이 그대로 식탁 위에 오르게 되므로 가정주부들이 닭고기를 주식으로는 꺼릴 뿐 아니라 학교 영양사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닭고기 요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형닭을 일본에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맛 좋은 닭고기를 제공하고자 2kg 이상의 대형닭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닭고기수출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닭고기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업무도 처리해왔습니다. 현재는 현업에서 은퇴했으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대형 닭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소형닭과 대형닭의 소비 시장이 양립한다면, 닭고기 시장이 더욱 더 커지고 닭고기 소비도 증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다이어트 열풍으로 닭고기를 찾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닭고기가 다른 축종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요?

닭고기는 대표적인 화이트 미트입니다. 화이트 미트는 단백질이 우수하고 동물성 지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지방이 적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근육섬유가 가늘고 연해 소화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가 약한 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도 좋습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메치오닌이 풍부합니다. 메치오닌은 항암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닭고기를 먹으면 항암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곡류 식사에는 가장 부족하기 쉬운 성분이 메치오닌입니다. 메치오닌 성분이 부족하면 아미노산 조성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해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법입니다. 메치오닌 성분이 풍부한 닭고기를 먹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아미노산 조성이 딱 맞아떨어져서 영양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닭고기는 영양의 균형도 찾고 항암효과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많이 알릴 수 있길 바라며, 다양한 닭고기 시장이 개척되어 닭고기 소비의 다변화와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 O T  
ISSUE

0 0 2

# 닭고기 소비위축 막기 위해 AI관련 방송 자제해 달라!

## 가금관련단체, 5개 주요방송사 방문해 가금농가 입장 전달



5개 방송사를 방문해 AI관련 방송 자제를 요청하는 가금관련단체장들

비슷한 5개 방송사를 방문해 AI 조기 종식과 가금산업 안정화를 위해 AI발생과 관련하여 가금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금관련단체장들은 연일 지속되는 AI관련 보도

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가금관련단체장들은 살처분 등 혐오스러운 장면은 소비를 급감시키는 주요인이므로 혐오스러운 장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AI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AI로 인한 외국의 인체 감염이나 사망사례를 여과 없이 방영하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AI관련 보도를 내보낼 경우 AI 발생보다는 소비홍보에 비중을 두어 줄 것을 요청하며 AI관련 보도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5대 방송사(KBS, MBC,

SBS, YTN, JTBC) 측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금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KBS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사용도 하지 않고 AI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살처분의 용어도 '매몰처리'로 사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서고 있으며, JTBC에서는 배경화면을 병아리 등 긍정적인 장면을 내보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대한양계협회와 연계해 지난 1월 29일 부화장을 촬영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섰다. 가금관련 단체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모든 언론매체에 통보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관련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가금관련단체들이 주요 방송사를 방문해 AI관련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8일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단체장들은 KBS를

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며 AI관련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류독감'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연상시키므로 AI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용어를 바꾸

## 과거 네 차례 AI 발생으로 평균 1,500억 원의 피해액 발생

2008년, 1,020만 수 매몰처리...피해액만 3,070억 원에 달해

그 동안 국내에는 고병원성 AI는 총 네 차례 발생했다. 올해 1월 17일 신고된 전북 부안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지난 2011년 5월 16일 이후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과거 네 차례의 AI 발생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시기는 2008년이며, 42일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피해액만 3,070억 원에 이른다. 네 차례의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의 총 규모는 6,005억 원이며, 평균 피해액은 1,500억 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한 시기는 2003년 12월 10일이다. 당시 고병원성 AI는 2004년 3월 20일까지 102일간 지속되었다. 겨울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으며,

10개 시·군에서 총 19건(닭 10건, 오리 9건)이 발생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19개 AI 발생농장과 인근 농가 392만 가구의 528만 수를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처리했다.

두 번째 고병원성 AI는 2006~2007년까지 104일 간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7건(닭 4건(중계 2건, 산란계 2건), 오리 2건(중오리), 메추리 1건)이었으며, 당시 매몰처리된 가금류는 280만 수(480 농가)였다.

세 번째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가장 피해가 컸다. 당시에는 지속기간이 42일로 가장 짧았던 반면 42건(닭 24건(산란계 13건, 토종닭 6건, 중계 2건, 기타 3건), 오리 10건(육용오리 8건, 중오리 1건, 오리 1건), 닭·오리 복합 8건)의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그토록 단기간에 AI가 확산된 요인으로 사료차량 및 닭 수송차량 등을 통한 전파와 소규모 사육 가든식당이나 가정 등의 부주의한 방역조치를 꼽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에는 도심지 실정에 맞는 AI 긴급행동지침이 마련되기도 했다.

네 번째 고병원성 AI는 2010~2011년까지 139일간 지속되었다. 당시에는 21개 시·군에서 53건(닭 18건(중계 4, 산란계 10, 육계 2, 토종닭 2), 오리 33건(중오리 10건, 육용오리 23건), 메추리 1, 꿩 1)이 발생했으며, 육계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도 평택에

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AI로 인해 261농가의 594만 수가 매몰처리되었으며, 피해액은 822억 원에 이른다.

고병원성 AI가 한 번 발생하면 평균 1,5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며 결국 이 피해액은 고스란히 농가의 수익구조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AI 조기종식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거 AI발생에 따른 피해규모

구분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발생시기	겨울철 ('03.12.10~'04.3.20)	겨울철 ('06.11.22~'07.3.6)	봄철 ('08.4.1~5.12)	겨울철 ('10.12.29~'11.5.16)
지속기간	102일간	104일간	42일간	139일간
발생지역	10개 시·군 19건(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 42건(닭 24, 오리 10, 닭·오리 복합 8)	21개 시·군 53건(닭 18, 오리 33, 기타 2)
형질형	H5N1	H5N1	H5N1	H5N1
유입추정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매몰처리	392농가 528만 수	460농가 280만 수	1,500호 1,020만 수	261호 594만 수
피해액	1,531억 원	582억 원	3,070억 원	822억 원

출처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서

## 육계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사례는 2011년 단 두 건이 전부

야생조류 뿐 아니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도 필요

올해 발생한 AI를 제외하고는 지난 네 차례의 고병원성 AI 발생 중 육계농장에서 발병한 경우는 지난 2011년 전남 나주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단 두 건이 전부이다.

경기도 평택(2011년 2월 7일)의 경우에는 330수가 폐사해 방역기관의 검사

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판명되었다. 농장 주변에서 야생조류의 분변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 습지와 하천이 있어 감염된 철새 등에 의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제는 전남 나주이다. 전남 지역은 전국 오리 사육량의 4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오리주산지로서 나주와 영암은 전남 지역 오리사육의 6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전남 나주 지역은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월 5일에는 전남 나주의 육계농장에서 6천수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검사를 의뢰해 1월 11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 특히 나주 지역은 사육되는 오리가 166만 수로 오리 사육

밀도가 높은 점과 인근 지역에 철새도래지 및 하천, 농경지가 있다는 점에서 항상 AI 발생위험이 노출된 지역이므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올해 1월 25일에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감염이 확인되었다.

과거 나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육계농가는 야생조류의 분변뿐만 아니라,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AI 바이러스 유입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H O T  
ISSUE

0 0 3

# AI 조기 종식을 위한 AI 확산방지 캠페인 펼쳐져

각 기관·단체, AI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및 가금산물 안전성 소개



AI 확산방지 캠페인을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가금관련단체 관계자들

민족의 대이동 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의 AI 확산방지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와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 1월 29~31일 대

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AI 예방대책 및 차단방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대전역사에서 농축산부 이동필 장관,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

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을 비롯한 가금관련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해 AI 예방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각 기관

장과 단체장들은 축산 농가에게 지켜야 할 위생수칙 및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AI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가금산물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가금관련단체 직원들도 AI 확산방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서울 고속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사)대한양계협회는 서울 고속터미널, (사)한국계육협회와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동서울터미널, (사)한국오리협회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향으로 향하는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홍보물(전단지, 물티슈)을 배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회장과 임직원들이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등 주요 역사를 찾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AI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설명하며 AI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월 29일에는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이 농진청 직원들과 함께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에서 AI 조기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 살처분 된 농가의 AI 보상금 지급기준은?

**육용 실용계, 사육단계와 출하단계의 육계를 따로 구분해서 보상**

방역당국은 AI 확진농가의 500m~3km 거리 내에 있는 가금농장의 닭과 오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 현재 AI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금류는 250만 수(106농가)에 달한다고 밝혔다.

AI 예방적 차원에서 닭을 살처분하는 것은 차단방역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의 식량자원을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닭을 정성스럽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게 갑작스레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다면 농가 입장에

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된 농가와 고병원성 AI 음성 판정된 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차이가 있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 피해농가는 보상금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AI 확산우려로 예방적 차원에서 닭을 살처분하였지만, 나중에 고병원성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농가는 보상금평가액의 100%를 보상받는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그 동안 사육일수 일주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의 닭은

병아리 값으로 보상하고 일주일 이후의 닭은 육계 산지가격으로 지원해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 3월 23일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었으며, 보상금평가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육용실용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구분	보상금 평가액
사육단계	$\text{병아리가격} + \frac{[(\text{산지가격} \times \text{출하체중}) - \text{병아리가격}]}{\text{평균출하일령}} \times \text{당해개체일령}$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용 실용계의 경우, AI로 인해 살처분된 닭에 대한 보상금은 크게 사육단계와 출하단계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우선 사육단계의 육계는 병아리가격에서 매몰처리 된 날까지의 개체일령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합하여 계산하며, 출하단계의 육계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 전국 각지에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이어져!



자료제공 : 당진시청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해 위축된 닭고기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충남 당진에서는 지난 1월 21일 이철환 당진시장이 시청 공무원들과 함

께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진행했다. 당진 시청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시식행사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은 유통이 원천 금지돼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로 인해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나섰다. 지난 1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은

구내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삼계탕을 시식했으며 AI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1회 이상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식단에 올리기로 했다. 충북농협에서도 지난 1월 29일 충북본부 뒷마당에서 열린 '설 맛이 직거래장터' 행사장에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코너'를 마련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최영호 남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30여 명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닭과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인의 식으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열었다.

경기도북부청도 지난 1월 29일 구내 식당에서 김희경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전 직원 500여 명이 함께 점심 메뉴로 닭곰탕을 시식하며 닭고기 먹기 운동에 동참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닭·오리 소비데이'를 지정한 지역도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 1월 28일 김석기 제1부시장을 비롯한 임직원 600여 명이 삼계탕을 시식했으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을 '닭·오리 소비데이'로 지정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활성화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길 기대하면서 더불어 AI 조기 종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 부  
탐 방

# 오랜 지부 역사와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원로들이 활동하는 이천육계지부



전명기 이천육계지부장

1월 17일 이천육계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지부 사무실을 방문했다. 전명기 지부장이 반갑게 맞는다. 총회이지만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총회를 개최하던 날 당시 바로 전날 고병원성 AI 의심신고로 인해 양계농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던 시기여서 총회 참석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지부운영실적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의 진행방향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으로 권태수 사무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천육계지부 회원수는 40여 명으로 원로회원들이 많아 결속력이 강하다고 자부한다. 특히 이천육계지부는 양계경력이 오래된 원로회원들이 많아 농가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 지부장인 전명기 지부장 또한 지부활동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김동재 고문은 양계경력만 30년이 훨씬 넘는다고. 또한 이천육계지부는 (사)대한양계협회가 형성된 이후 설립역사가 오래된 지부로, 특히 다른 지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부가 별도로 없던 산란계농가와 함께 운영하다가 이천산란계지부가 형성되어 분리되었고, 회원농가가 많지 않은 여주지역 육계농가들도 초기엔 함께 활동을 하다가 지부를 설립하여 분리되었다.

전명기 지부장에게 요즘 이천육계지

부의 화두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성화 식품에서 계열사육농가의 사육비를 인하하면서 양계농가의 거센 반발을 산대 이어, 최근 메이저급 계열사에서 사육비인하를 통보하고 나서면서 과연 계열사와 농가가 상생하는 관계가 맞는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명기 지부장은 메이저급 계열사까지 사육비인하에 나선데 대해 매우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최근까지 전명기 지부장은 개인사육을 해왔던 탓에 계열사와 농가와 의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는 놀랐다. 앞으로 육계분과위원회와 새로이 설립될 농가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전명기 지부장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한다. 특히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과 이천시청 축산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왕겨지원사업과 각종 약품지원, 시설지원사업에 앞장서 주고 있어 지부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은 표정을 짓는다. 전명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이천지부가 대표 모범지부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함께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다졌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권태수 사무장에게 감사선물을 전달하는 전명기 지부장



## 육계질병가이드 / 감보로병 상담사례

Q. 농장에 감보로병(IBD, 전염성 F'낭병)이 발병하여 출하율이 평균 6%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대체법은 무엇인가요?

A. 감보로병은 백신 사용이 일반화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필드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한번 감보로병이 발병한 농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감보로병은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므로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소독제와 백신으로 예방해 나가야 하는 질병입니다. 감보로병이 잘 알려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소독제에 강한 저항성이 있으며, ▲ 백신의 효과는 높지만, 모체이행항체(중계에서 병아리로 전달된 항체)가 높을 경우 백신이 중화되어 면역형성이 안되며, ▲ 감보로병의 경우 모체이행항체가 병아리 개체별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여도 모든 병아리를 균일하게 방어해주기 어려우며, 너무 일찍 접종하면 모체이행항체에 의해 중화되어 효과가 없고, 너무 늦게 접종하면 감보로병에 감염됩니다. 따라서 백신일령을 결정하는 문제는 농가의 상황을 잘 아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14일령 전후에 ND백신과 함께 감보로 백신을 음수 접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보로백신의 경우 보통 접종 후 2~3일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까지 고려해보면 10~12일령에는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중간독 플러스 백신을 이른 일령에 접종할 경우 계군상태에 따라 식욕감퇴, 면역억제 등의 후유증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입추 전 감보로병에 효과적인 소독제(글루타알데히드, 포르말린, 요오드 계열등)로 축사 내외부를 두 번 이상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세 파스 이상 지속적으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면서, 감보로병 발생양상을 관찰하십시오. 올바른 백신접종과 철저한 소독을 통해 농장의 감보로병 바이러스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 감보로병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문의: powerseeker@hanmail.net)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 한강씨엠(주), 닭개장 브랜드 '오롯이' 1호점 개장



라고 덧붙였다. 닭개장 브랜드 '오롯이'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오롯이 닭개장, 닭곰탕, 뚝볶음탕, 파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고기 매운 야채무침 등이며,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한 끼 식사로 충분할 정도의 양과 맛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강씨엠(주) 관계자는 저녁 가족단위 식사로는 닭볶음탕을 추천했으며, 전 메뉴가 포장 가능하므로 미리 전화로 예약만 하면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 준다고 밝혔다. 닭개장 브랜드 '오롯이' 매장은 카페형 음식점이어서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으며,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강씨엠(주)는 지난 1월 7일 닭개장 브랜드 '오롯이' 1호점을 경기도 화성에 개장하였다.

한강씨엠(주) 관계자는 '오롯이'란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다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맛과 신선함, 정성을 오롯이 담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롯이' 닭개장의 특징은 진한 닭고기 육수를 매장에서 직접 우려내므로 그 정성과 맛이 일품이



닭개장 브랜드 '오롯이' 전경사진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4년 1월)

(단위: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안중규		61,950 (61,950)	
백성순	성경농장	136,600 (136,600)	전북 고창군 해리면
박은식		129,510 (129,510)	
이상길	한마음농장	100,000 (10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이옥례	해피농장	204,150 (204,150)	전남 곡성군 겸면
류금현		85,000 (85,000)	충북 대천시 유성구
김경래	희망농장	196,603 (196,603)	경기 파주시 월롱면
김명기	진미농장	33,394 (33,394)	경기 파주시
김병국	미리농장	295,890 (295,890)	경기 파주시 파평면
김종철	강현농장	128,488 (128,488)	경기 파주시 적성면
김창식		126,970 (126,970)	
문병욱		108,095 (108,095)	경기 파주시 파주읍
문판남	일신농장	52,047 (52,047)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박명호		84,042 (84,042)	경기 파주시 법원읍
박창영	제일농장	67,580 (67,580)	경기 파주시 문산읍
오형근	청원농장	135,596 (135,596)	경기 파주시
윤원용	대능농장	126,181 (126,181)	경기 파주시 문산읍
윤중서		177,000 (177,000)	
이종훈	역수농장	75,848 (75,848)	경기 파주시
임춘경	수영농장	80,373 (80,373)	경기 파주시
조성덕	성원농장	58,270 (58,270)	경기 파주시 월롱면
조장준	조산농장	259,762 (259,762)	경기 파주시 조리읍
정운광	다운농장	60,000 (6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이영하	시온농장	116,000 (116,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진정수	구구축산농원	120,000 (12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영순		130,000 (130,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모인철		158,320 (158,320)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이종수		200,000 (200,000)	
이영순		130,000 (130,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최정석		100,000 (100,000)	

※ 2014년 1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3,737,669원이며,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 (사)대한양계협회



#### AI 위험지역(3km)내 자연지형에 의한 차단방역 농가 유동적 이동조치 요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정부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한 강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오염지역(500m내)은 살처분, 위험지역(3km내)은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살처분 농가는 더욱 확대되었

으며, 이동제한으로 인한 주변 양계농가의 경영차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농가를 기준으로 오염지역(500m이내)이나 위험지역(3km)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고병원성 AI와 무관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본회에서는 위험지역에 해당되는 발생농가 기준 3km내 포함이 되더라도 주변 하천이나 기타 자연지형으로 인한 차단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위험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같은 3km 범위 내에 있더라도 산이나 하천으로 인한 경계가 확실하고 질병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등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 구성

#####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반 구성

(사)대한양계협회와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농협중앙회가 뭉쳐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을 구성하고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언론에서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잘못된 언어표현과 혐오스러운 영상물이 방영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발 빠른 대처를 하기위해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이 구성된 것.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은 각 단체 회장단과 함께 지난 1월 28일 KBS를 비롯한 5개 방송사(KBS, MBC, SBS, YTN, JTBC)를 방문한 바 있으며,

국내 AI 무증상 감염자보도에 각종 확대 해석 기사들을 자제해 줄 것을 각종 언론사에 요청하고 질병방역관리본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가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충남대학교 측에 서상희 교수의 언론 및 방송인터뷰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본회를 비롯한 가금관련단체는 가설에 그친 인체감염설을 지속적으로 퍼트릴 경우 가금산업 종사자와 축산관련 농가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였다.

앞으로도 가금관련단체 AI방역대책 TF팀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언론대응과 나아가 위축된 양계산물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사)한국계육협회



#### AI에 대응하여 주말 오전 교양방송 홍보 시행



#####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통해 주말 정보기전 시간대 공략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닭고기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지금, AI와 관계없이 겨울철

국산 닭고기 효능을 부각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주말 오전 교양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월 25일(토) 오전 8시 40분 주말 인기 TV프로그램인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통해서 성인병과 심장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닭고기의 효능과 겨울철 보양식으로 권장되는 부위별 효능에 대해

방송했으며, 토요일의 장보기 전 시간대를 공략하여 주말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켰다.

방송에서는 전문 한의사가 등장해 닭고기에는 리놀레산이 풍부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닭고기의 효능에 대해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닭고기의 건강학을 소개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근호 박사가 출연해, 국내산 닭고기가 신선도가 높고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사실을 밝히며 수입산 닭고기와 비교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점을 설명했다.

특히 AI에도 불구하고 잘먹고 잘사는 방법으로 건강적 효능을 소개할 수 있는 '건강메모' 코너에서 닭고기를 주제로 방

송이 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닭고기의 건강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내용 중에는 닭고기 섭취를 통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있다는 가족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더욱 높였으며, 부위별 효능 및 동의보감에서도 인정받는 겨울철 보양식 닭고기를 전문가가 소개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였다.

(사)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SBS 생방송투데이에서 방송된 발열음식 닭고기의 효능에 이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의 국내산 닭고기의 방송내용을 온라인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2차 연계 파급시켜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에게는 힘을! 소비자에게는 시식욕구를!



닭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투혼' 출연자들

설 명절특집 '투혼'으로 함께 이겨내는 AI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고기 생산 농가와 계열화 업체들을 응원하고 국내 닭고기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KBS2 TV 설날 명절특집 프로그램 '투혼'을 통해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방송을 진행하였다.

설 연휴 첫날인 1월 30일 오후 6시 10분부터 100분간 방영되었던 '투혼'은 국내 최초의 닭싸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추석 명절 방영되었던 인기로 힘입어 다시 한 번 설 특집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닭고기와 인연이 깊은 방송인 이경규 씨를 새로운 MC로 선정하고, 명절특집 프로그램에서 항상 선보이던 한우선물세트를 대신하여 '닭고기 선물세트'를 대체 삽입하였다는 점은 명절선물로도 닭고기 선물세트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시도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결승전에서 맞붙은 양준혁 & 윤형빈 팀과 허윤 & 유민상 팀은 각각 삼계탕과 치킨 먹방을 보였던 팀이기에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닭고기 시식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기사와 함께 선수시절부터 게임 전 닭한마리를 먹으며 몸보신을 했다는 내용으로 닭신에 등극한 양준혁의 기사, 닭고기가 우승에 일조했다는 등 수차례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이번 투혼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AI로 힘들어하는 생산농가와 계열업체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연예인들이 닭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방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닭고기 시식욕구를 불러일으켰다"며 "앞으로도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고기 업계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소독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 소독 나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의거 전국 전통시장 및 5일장 등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본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번 소독에 지원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시군구와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담유통분과위 각 지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난 1월 30일(목)부터 2월 5일(수)까지 전국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 내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각 시군구

와 함께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일(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청주 옥저리 전통시장 방문하여 전통시장 내 산담 판매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산담 판매업소 상인 등이 참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AI 확산방지를 위한 산담 판매업소 방역 조치사항 등을 시찰하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본 협회, 전통시장 상인 등 자율적인 폐쇄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다.

농축산부,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발표

'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면적에 한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농가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금은 새로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부지에 10년 이내에는 가축

용자)과 이차보전 방식(용자) 대상자를 구분된다.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용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용자)로 지원한다.

농축산부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으로 축산시설 중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과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신설해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통한 축사생산성을 개선하고, 축산업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 개선시설 지원을 신설하는 등 축산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 선정 시에 가산점을 배점<표 참조>한다고 밝혔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 <육계(토종닭 포함)>

평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0납입율 10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별표 1-5-가)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0납입율 80%이상 100%미만	+30	
	0납입율 60%이상 80%미만	+25	
	0납입율 40%이상 60%미만	+20	
	0납입율 20%이상 40%미만	+15	
	0납입율 10%이상 20%미만	+10	
	0납입율 10%미만	+5	
	* 납입기준은 '11.1~'13.12월 도계분에 한함	0	

사육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원받는 농가는 사육 규모 (면적 환산)을 기준으로 현행 방식(보조+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 닭고기 완자탕

완자는 잘게 다진 고기에 녹말과 다양한 재료를 섞어 빚은 뒤 기름에 지진 음식으로, 학생들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닭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들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 어른의 술안주나 학생들의 간식으로 유용하다.

- 닭고기완자재료** 닭 가슴살 300g, 녹말 1과 1/3 큰 술, 계란흰자 1개, 생강즙 1/2작은 술, 다진 대파 흰 부분 1작은 술, 청주 1큰 술, 소금, 흰 후추, 여분의 녹말
- 나머지 재료** 불린 흰 목이버섯 150g, 생표고버섯 4장, 청경채 1포기, 대파 5cm 길이, 생강 채 2g, 닭고기육수 6컵, 청주 3큰 술, 참기름 1큰 술, 소금, 흰 후추



Cooking

1. 닭 가슴살은 으깨듯이 곱게 다진 후 완자 재료를 넣고 끈기가 나도록 치대어 직경 2.5cm 크기로 완자를 빚어 녹말을 묻혀 놓는다.
2. 불린 흰 목이버섯은 모래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나씩 뜯어 놓는다.
3. 표고버섯과 청경채는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의 편으로 썰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각각 데쳐 찬 물에 담가 식힌 후 물기를 뺀다.
4. 생강은 곱게 채 썰고 대파는 둥글게 채 썬다.
5.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닭고기 완자를 넣고 잠시 끓이다가 완자가 살짝 익으면 흰 목이버섯, 표고버섯, 청경채를 넣고 청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후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
6. 그릇에 닭고기 완자탕을 담고 송송 썬 파를 위에 뿌려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퀴즈 날말맞추기

1				11	
		9			
10				12	
		8	5		
2	3		6		7
	4				

◇가로풀이 ✨ ✨

- 1 강수량이 적어서 식생이 보이지 않거나 적고 인간의 활동도 제약되는 지역
- 2 일정한 규칙을 따라 주기적으로 움직임
- 4 신문, 잡지 따위의 정기 간행물의 맨 첫 번째 호
- 6 이궁이 위에 술을 걸쳐 놓는 언저리, 흉과 돌을 섞어 쌓아 편평하게 만들
- 8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 9 병아리의 암수를 가려내거나 골동품, 보석 따위의 가치를 가려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10 식이 요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 11 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
- 12 주가 되는 회사를 지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세로풀이

- 1 가족의 체중을 1kg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료를 몇 kg 공급하면 좋은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사료섭취량/체중증가량의 값을 이용함
- 3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이
- 5 재산이 매우 많고 세도가 있는 부자
- 7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 9 감을 숙성하여 만든 식초
- 11 원본을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

65호 정답

하		호	간	용	
하	술	술		용	용
		하	호		산
하	술	하	용	용	용
	하	술	간		용
하	술			하	하



# 양계 비법전수

## 육계농장의 저온기 최소 환기요령을 알려주세요.

육추 초기에 저온에서 사육하게 되면 출하 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저온기에는 외부의 신선한 찬 공기가 계사의 윗부분에서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저온기에 외부의 찬 공기를 계사의 윗부분으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밀폐도가 중요하다.

찬바람이 닭에게 직접 접촉하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연료비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밀폐도를 높

여서 입기구를 통해서만 공기가 들어오게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용마루 부분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윗부분에 떠 있는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아래 부분의 닭의 생활공간에 있는 오염된 공기와 섞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량에 맞게 적당하게 입기구를 열어서 적당한 음압이 형성되어야 외부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계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분배되게 된다. 특히 온도가 낮아질수록 공기 중에 수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수분포화도는 낮아져서 결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깔짚이 질어지게 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찬 공기가 직접 닭에게 떨어지지 않고 계사 윗부분에서 잘 섞이도록 하여 수분포화도가 높게 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